민족문화연구 “한국 문화의 정체성(2)” 특집의 말

민족문화연구원은 한샘DBEW연구재단의 지원으로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문학, 역사학, 철학, 미학, 사회학, 종교학, 건축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면서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2020년 5월 16일에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 연구’를 마무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한국 문화의 정체성 (2)’ 특집은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총 9편 중 역사, 미술, 종교의 주제를 다룬 3편을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최종석의 「조선 초기 종교 심성의 전환과 神事」는 조선 초기에 祀典의 국가적 의례 차원과 민간의 개인적 致祭 차원에서 일어났던 의례의 혁신의 특성과 실제 역사적 진행과정을 심도있게 분석한 연구다. 이 연구는 국가 차원에서는 공덕 있는 존재에 대한 보답과 감사의 윤리적 행위로 변모했고, 개인 차원에서는 分限에 맞는 조상 제사의 변화가 추진되었다는 점을 논의한 부분에서 기존 연구성과를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이러한 의례적 혁신이 당시 현실과 괴리가 큰 이질적 종교 심성에 토대를 둔 것인 동시에 명나라의 의례 정책의 영향을 수용하면서 전개된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규명하였다. 또한 태종대를 분기점으로 해서 국가 사전의 방면에서 국왕의 확고한 의지를 기반으로 하향식으로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혁신 행보가 상당히 실현된 반면, 개인적 치제에서는 혁신적 종교 심성을 강행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흐름 가운데 혁신적 종교 심성의 확산과 禮俗의 정착을 기다리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명나라와 조선의 혁신적 의례 정책 비교와 더불어 국가 사전과 개인 치제의 차원에서 혁신적 종교 심성의 전개 양상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실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를 심화시켰다고 평가할 만하다.

정혜린은 「구수한 큰 맛: 번역된 자연미」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미술사학자이자 미학자인 고유섭이 ‘구수한 큰 맛’, ‘무기교의 기교’ 등 자연미 계열의 개념어로 구축했던 한국 미술사 설명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안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개념어들이 서양 미학과 미술사, 일본과 중국의 미술과 비교를 통해 새롭게 조성된 것임을 밝히는 한편, 고유섭이 문화과학, 진선미, 지정의의 분류법을 일제 강점기 경성제국대학의 아베 요시시게를 통해 전달된 신칸트학파의 학문적 방법론을 수용하여 한국미술을 평가했고, 이로 인해 한국미술사에서 시서화일치를 추구하는 회화가 제외되고 공예를 통해서 한국미술의 특징을 설명하는 경향이 파생되었다는 점을 논증했다. 이러한 연구는 '구수한 큰 맛'이라는 개념이 결국 한국의 자생적 미의식이 아니라 서양 근대 학문의 산물이라는 점을 해명함으로써 자생적 한국미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통해 새로운 탐색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종천은 「풍류(風流)로 보는 한국종교의 에토스」에서 한국 종교의 주류 엘리트 전통이 드러내는 '순수 정통주의'와 다양한 종교들의 혼성적 병존을 보여주는 비주류 대중적 전통의 '관용적 포용주의'가 병행되어 온 한국종교문화의 특성을 '풍류'(風流)의 에토스를 통해 설명했다. 특히 한국종교사에 불교의 일심(一心), 유교의 리(理), 기독교의 씨ᄋᆞᆯ 혹은 얼나 등의 보편적 실재에 입각한 회통(會通)적 사유와 활동을 검토함으로써, 현묘지도'(玄妙之道)의 보편적 신비주의, '포함삼교'(包含三敎)의 다문화적 수용성, '접화군생'(接化群生)의 사회적 실천과 교화 등이 어우러지는 풍류의 에토스를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는 분명 불교, 유교, 기독교 등의 특정 종교 전통들을 각각 별개로 기술하는 한국종교사 설명에서 진일보한 것이며, 기존에는 한국의 선험적 종교성 혹은 불교보다 앞서 존재한 특정한 종교전통으로 해석하던 '풍류'를 한국에 들어온 모든 종교전통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된 종교문화적 에토스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만하다.

본 특집에 실린 세 편의 논문들은 각각 조선 초기 의례문화의 혁신적 전환을 종교 심성과 대외 교류, 국가와 개인의 차원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자연미 계열의 고유한 한국미 설명에 드리워진 서양 근대 학문의 그림자를 비판적 반성하며, 선험적 종교성이나 특정 종교전통을 넘어서서 다양한 종교 전통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과 변주를 하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인 종교문화적 에토스를 새롭게 음미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외부

문화와의 교류를 제외한 채 선험적 주체성이나 배타적 순수성을 전제로 삼아 전개하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 담론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합류하고 있다. 아울러 단면적이고 배타적이며 고정적인 문화의식을 넘어서서 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과 주체들이 빚어내는 다면적이고 상호교섭적이며 역동적인 문화적 양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일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문화의 정체성 논의를 위한 새로운 자극을 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원은 두 번에 걸친 특집을 포함해서 두 차례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한 권의 단행본으로 묶어 조만간 출판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삼아 한국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지속할 예정이다.